

생명사상으로 '공동체 삶' 일군다

인류와 자연의 조화

환경운동 20세기 후반 인류가 저지른 행위를 자각하면서 제기한 화두가 '지속가능한 생존'이다.

환경운동은 앞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주의로 전환해 대안적 공동체운동, 대안학교운동, 귀농운동, 한살림운동, 생활협동조합등이 구체적으로 사회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생명운동 작은대학을 개설하고 인간소외, 집단적 무관심, 자연을 주체적으로 이끈 지난 세기를 반성하고 진지한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수행과 깨달음,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방침으로 추진중이다.

생명운동 작은대학은 제3의 길로서 생태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문명사적 대안으로 이끌어내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대안적 사회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9월 11일 창립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21세기를 지배할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이 교육에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의 유기순환적 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생명중심사상을 펼치게 될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주요사찰이 위치한 농촌과 산간을 도시의 생활과 이어 주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고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생태농업을 실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을 환경생태계보존, 국토정화 및 환경개발, 문화및 전통보존, 식량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가치를 두고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생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난민구호·경제협력 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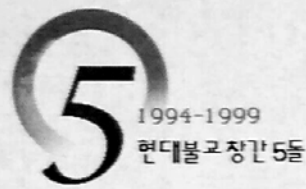
통일운동 불교통일운동의 영역은 통일 의 당위성 교육에서 출발하여 식량지원까지 점점 넓어지게 대응해 왔다. 21세기를 앞두고 불교통일운동은 단순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

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지원개념에서 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남북한 대치상황을 분석하는 평화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 통일 학습교류를 전개해 나가고 실제 협력이 가능한 부분 즉 사찰복원등 경제적 교류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사) 좋은 벗들은 북한식량지원 운동에 치중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중국 접경지역의 탈북 식량난민구호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지의 연담조사를 통해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등을 제기하여 독자적인 통일운동의 길을 개척한 좋은 벗들은 탈북난민의 법적지위 향상과 실질적인 난민지원운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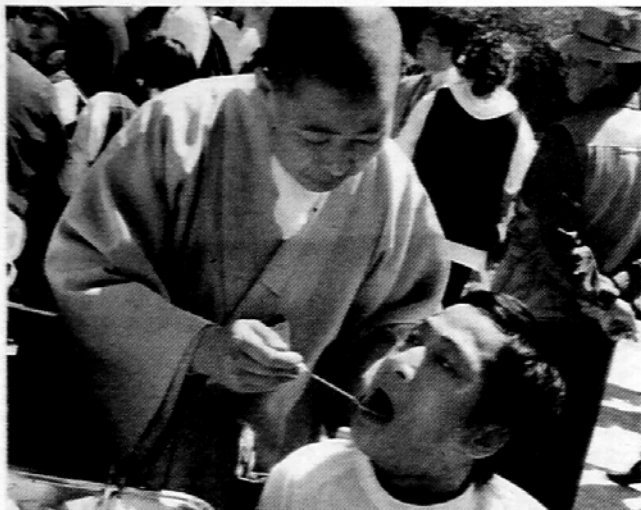
민족화합불교추진위는 불교가 남북의 통합과정에나 그 이후 불교계의 역할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위해 통일발사금 준비와 차분하고 체계적인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각종도 국제불교연구소를 운영하며 불교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일운동단체들은 탈북난민지원, 통일교육을 위한 정보교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교육 등에 연합으로 힘을 모아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고 있다.



21세기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한국 불교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지구적인 공익을 위해 생태주의적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체운동과 국제연대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환경 통일 시민운동과 복지사업 국제포교등 그현장을 찾아 미래불교운동의 투시도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21세기를 준비하는 불·교·현·장



○21세기 복지형태는 치료보다는 예방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장애인복지와 스님, 자원봉사자가 사찰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시민운동 종단민주화·NGO참여 강화

불교시민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권및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불교민주화(사) 좋은 벗들은 북한식량지원 운동에 치중

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중국 접경지역의 탈북 식량난민구호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지의 연담조사를 통해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등을 제기하여 독자적인 통일운동의 길을 개척한 좋은 벗들은 탈북난민의 법적지위 향상과 실질적인 난민지원운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은 시민운동의 지구화를 위해 국제연대의 손길을 넓히는 작업을 전개한다. 이를위해 11월 열리는 MR(밀레니얼라운드)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10월 서울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NGO운동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불교장기수후회회를 창립하여 장기수습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교의 대사회적 참여를 모색하는 새시대불교포럼을 창립하여 미래불교운동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새불교운동전승가회는 실직자정리금과 결식아동지원금 등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앞으로 불교교육과제 도출및 프로그램연구를 통한 설득력있는 포교방법론을 연구하고, 교단내 수행공로조성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대안제시에 적극나선다는 계획이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승가 재가의 역할 확립에 기반한 종단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 참여의 종단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서명작업과 포럼을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다.

더불어 잘사는사회 구현

복지 21세기 불교복지는 '앞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베푸는 차원을 벗어나 다가가서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새로운 불의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개념은 분야별 복지서비스 형태 변화를 통해 적용된다. 우선 장애인 복지는 '수용'의 개념에서 '사회생활'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은 지금까지는 달리 일반인과 똑같이 직업을 갖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인복지의 '소극적 보호'에서 '문화 창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선봉장으로 나선다. 한편 고교 200여 복지시설은 이같은 개념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용시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활동'이라는 적극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처럼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승가회, 연꽃마을, 인덕원등 고교 복지단체는 중앙집중식 보다는 지방단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경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 복지재단은 새 천년 들어 스리랑카 등 5개국에 국제구호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국제교류에 나서는 등 국내와 국제를 하나로 묶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불교복지의 저변을 확대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금까지 캠페인과 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판단. 본격적인 의료복지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불교단체 해외교류 확대

국제포교 20세기에 한국불교 국제포교의 주축들이 세워졌다면 21세기에는 세계로 향하는 다리가 건설된다. 66년 첫발을 디딘지만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 한국불교 국제포교의 현실. 그러나 21세기에 그는 그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된다.

올해부터 국내 불교소식을 담은 영문판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불교서적 번역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설, 해외 불교단체들과의 교류확대, 외국인 대상의 사찰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개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21세기 국제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불교를 지도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명예국제포교사로 임명해 활동토록 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스님들을 포용시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도 중점을 두게 된다. 현재 70여명에 불과한 국제포교사도 매년 20명 이상씩을 배출해 그동안 잠잠해온 수적 열해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국제포교사회, 연등 국제포교회관, WFB(세계불교도우의회),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화계사 등 지금까지 국제포교를 담당해왔던 각 단체들은 이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불교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선불교를 통한 한국불교알리기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한영우 기자



○불교운동단체는 2·3일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21세기 불교' 네트워크 포럼

"연기사상은 문제해결 열쇠"

'지배의 틀' 가고 생태주의 도래

"서로 힘을 모아 뜻을 이룰때까지 행동으로 실천하자"

불교운동단체들은 2·3일 양일간 의정부 다락원캠프장에서 6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포럼 '불교운동! 21세기의 눈으로 오늘을 준비한다'를 개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운동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생태종교수(한국대 학과)와 사회학 진흥원 포럼에서 정수복씨(한국사회운동연구소장)는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운동'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며 타인종과 타문화에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새로운 정치운동 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깨달음과 수행, 가르침의 사회화'를 주제로 발표한 도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스님은 "불교운동의 깨달음의 안목으로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연기와 세계관에 바탕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인간화와 생명위기의 상황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세계의 실상과 존재가치에 눈뜨게 하는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운동의 영역과 운동의 새로운 동력'에 대해 발표한 김판용씨(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 간사)는 "지금 불교운동에 필요한 것은 고타마 싯달다가 느꼈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파악하고 더불어 깨달음의 근원에 대한 향으로 진지하고 결연한 자기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교운동진영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밀도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계의 21. '바루자, 준비하자, 행동하자'를 주제로 한 본과포럼에서 불교운동단체 실무자들은 환경생명운동및 문화복지운동, 국제연대및 평화통일인권운동, 불교학신및 불교여성운동분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21세기 운동방향이 불교의 유기적 연가론에 바탕한 생태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호협력력을 통한 21세기 불교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자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종단 진흥회

회장직무대행 김 부회장 김혜정
사무총장 송보인

대인불교전태종	총무원장	진운덕	대인불교미덕종	총무원장	권성우
대인불교종외종	총무원장	전남정	대인불교애동종	총무원장	산성
인국불교법외종	총무원장	김광대	대인불교대승종	총무원장대행	성용
대인불교용외회	총무원장	김무찰	대인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순경
대인불교일승종	총무원장	김혜정	대인불교용외종	총무원장	성법
인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	대인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법
대인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최법륜	대인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성법
대인불교진언종	총무원장	손금광	인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성법
대인불교대각종	총무원장	손석주	대인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성법
대인불교법외종	총무원장	주영			